차이나 마켓 워치

CHINA Market Watch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민영기업수 5,000만 개사 돌파

■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등록한 민영기업은 5,093만 개사로 2012년 말(1,086만 개사) 대비 3.7배 증가했고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4%에서 92.4%로 상승

- 1~5월 신설된 민영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17.2% 증가한 376만 개사로, 동 기간 등록말소 기업은 1.4% 증가한 161만 개사로 나타남

- 소재지역별 민영기업 수 1~5위는 광둥성(697만 개사), 산둥성(435만 개사), 장쑤성(385만 개사), 저장성(320만 개사), 허난성(260만 개사)이며, 지난 10년간 민영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시짱(西藏), 충칭, 하이난, 안후이로 집계

- 산업별 분포를 보면 1차, 2차, 3차 산업 비중이 3.5%, 20.3%, 76.2%임. 올해부터 신설 민영기업은 주로 도소매업,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에 집중되었고 비중은 각각 34.1%, 13.9%, 12.1%로 집계. 숙박·요식업 분야 신설 민영기업은 6.9만 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44.4% 대폭 증가

- '4新경제(신기술·신산업·신업종·신모델)' 발전 추세도 양호하며 5월 말까지 관련 기업은 2,500만 개사에 달했고, 1~5월 신설기업은 215만 개사로 전체의 57.1%를 차지

■ 2023년 100대 민영기업 순위를 보면 1~5위는 징둥그룹(京东集团), 알리바바(阿里巴巴), 헝리그룹(恒力集团), 화웨이투자홀딩스(华为投资控股), 텐센트홀딩스(腾讯控股)로 나타남

- 100대 민영기업 중 저장성과 광둥성 기업이 각각 16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이징시와 장쑤성 기업은 각각 12개사, 허베이성, 상하이시, 산둥성 기업은 각각 8개사, 7개사, 4개사임

자료원 : 중국청년보, maigoo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7/202307060950161017.html
https://m.maigoo.com/news/665559.html

2 시노펙, 만 톤 급 태양광 수소 프로젝트 생산 개시

■ 시노펙에 따르면 최근 신장(新疆) 쿠처(库车) 그린수소(绿氢) 시범프로젝트가 수소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중국 첫 번째 만 톤 급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임

- 류스량(刘世良) 시노펙 CE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수소는 신장지역의 풍부한 태양광 자원으로 제조한 순도 99.9%의 수소라고 소개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전해그린수소 제조시설, 수소 수송선 등의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전해그린수소 제조량 연간 2만 톤, 수소 제조능력 21만 표준 입방미터, 시간당 2.8만 표준 입방미터의 수소 수송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함

-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제조하고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기본상 배출하지 않음.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그린수소는 헤이룽장성 타허(塔河) 시노펙에 공급하는데, 기존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 제조를 전부 대체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48.5만 톤을 감축 가능할 예정

- 시노펙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태양광부품, 전해조, 수소저장탱크, 수소수송용 파이프 등의 설비 및 핵심재료는 전부 국산화를 실현하여 중국의 수소에너지 장비 및 수소산업 발전을 촉진했다고 밝힘. 한 예로, 동 프로젝트 가동 전 1,000 표준 입방미터 전해조에 대한 수요가 30대에 불과했으나, 이번 프로젝트에 52대가 필요하여 전해조 산업의 규모화 생산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함

자료원 : 경제참고망

http://www.ce.cn/cysc/ny/gdxw/202307/10/t20230710_38624125.shtml

3 2023년 중국(광저우)국제건축장식박람회 개최

■ 중국대외무역센터그룹, 건축장식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5회 중국 국제건축장식박람회(7/7~7/11)가 광저우시 파저우(琶洲)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시면적은 10만 평방미터 증가한 40만 평방미터로 참가업체는 2,000개사에 달했음

- 전시회 참가 브랜드들은 각 사 전시면적을 늘리고 더 다양한 품목을 전시하는 추세를 보였음. OPPEIN(欧派), HIGOLD(悍高), sogal(索菲亚), ZBOM(志邦), BOLONI(博洛尼) 등 브랜드의 전시면적이 각각 1,7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 900평방미터, 850평방미터, 700평방미터에 달함

- 글로벌 유명 브랜드도 중국 리오프닝에 맞추어 전시회에 참가하여 신제품, 신디자인, 신소재 및 신기술을 선보였고 전시회 기간 대형 회의와 포럼, 신제품 출시회 100여건을 개최했음

- 금번 박람회에서는 산업 간 융합 사례도 돋보여 자동차 브랜드가 가구업체와 협력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홍싱메이카이롱(红星美凯龙)가구그룹과 샤먼젠파(建发)자동차그룹, 상하이카나이츠(卡乃驰)자동차서비스유한회사는 상호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중고차 프랜차이즈 매장, 중고차 공급망 서비스, 중고차 교역 플랫폼, 차량 검사·평가시스템 등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한편, 동 기간 2023 광저우 국제 욕실용품 박람회도 개최되었는데, 전시면적은 3.5만 평방미터, 200여개 국내외 유명 욕실용품 브랜드가 참가함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7/202307101413421054.html

4 中, 신형 에너지저장 산업 규모 1조 위안 돌파 전망

■ 중국 화학물리전원업종협회에 따르면 2025년 신형 에너지저장 산업규모는 1조 위안(약 179조원)을 돌파하고 2030년 3조 위안(약 538조원)에 근접하며, '2023년 에너지저장산업 연구백서'에 따르면 2027년 신형 에너지저장 산업의 누적 배터리 용량은 138.4GW, 2023~2027년 연평균 성장률이 60.3%에 이를 전망

* 신형 에너지저장(新型储能)이란 양수에너지저장(抽水蓄能) 이외의 신형 에너지저장 기술을 의미, 신형 리튬이온전지, 액유전지(液流电池), 플라이휠, 압축공기, 수소·암모니아 에너지저장, 열·냉 에너지저장 등 포함

- 중국배터리공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에너지저장 분야 공개입찰 프로젝트는 117건, 배터리 용량은 24.1GWh로 전년 동기대비 189%, 전분기 대비 53% 증가했고 낙찰된 프로젝트 배터리 용량은 21.8GWh로 1분기 대비 185% 증가함

- 올해 상반기부터 이란커(亿兰科), 중추궈넝(中储国能), 다롄융커(大连融科) 등의 에너지저장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 한편 지난 1년간 에너지저장 분야 투자건수는 108건으로 RONGKE POWER(融科储能), HTHIUM(海辰储能), 중추궈넝(中储国能) 등은 10억 위안(약 1,793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1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받은 사례도 많았음

자료원 : 증권시보망

http://www.stcn.com/article/detail/910093.html

5 中,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가속화

■ 코로나19 기간 중국의 식품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와 식품 공급 모델 변화는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추세를 보임

- '중국 경공업 산업클러스터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중국내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43개로 증가했고 양주(酿酒), 베이킹, 통조림, 발효, 유제품 등 업종을 망라했으며, 전국적으로 17개 성·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산둥성과 쓰촨의 클러스터 수량이 가장 많았음

■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查)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식품 생산업체는 132만 개사이며, 이 중 2022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7만 개사,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한 업체는 7.2만 개사로 집계됨

- 지역별 분포를 보면 1~3위는 산둥성(15.7만 개사), 허난성(10.2만 개사), 광둥성(8.8만 개사)이며, 5년 내 설립된 기업 비중은 45%, 10년 이상인 기업 비중은 13.7%로 나타남

- 2022년 중국내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식품업체의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9조 8,000억 위안(약 1,757조 원), 이윤 총액은 9.6% 증가한 6,815억 위안(약 122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매출 총액은 7%, 이윤 총액은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앙광망, 중공망
https://tech.cnr.cn/techph/20230704/t20230704_526315029.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70456732767746003&wfr=spider&for=pc

6 中, 2022년 '중국 국내산 성분' 화장품 시장규모 10조원대로 성장

■ 중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성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CHICMAX(上美), OSM(欧诗漫), Dr.Alva(瑷尔博士) 등 6개사가 독자적인 '중국 성분'을 출시함. 일부 기업은 핵심성분 연구개발 기술을 장악했고 일부 기업은 천연 식물추출물을 선보임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에 따르면 현재까지 60여개 신원료가 NMPA 등록에 성공했고 국내기업의 등록 건수가 1위이며 '노화 방지' 성분 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중국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화장품 업계는 중국 국내 화장품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에 등록한 성분을 '중국 성분'으로 간주

- 한편 2022년 '중국 성분' 화장품 시장규모는 546억 위안(약 10조 원)에 달하며 5년 내 1,000억 위안(약 18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 또한 '중국 성분'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는 평균 415위안(약 7만 원)으로 외자 브랜드와의 가격 차이가 2.5배에서 1.4배로 축소됨. 또한 마스크팩에 '중국 성분'을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했음

-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 왕마오춘(王茂春) 부회장은 화장품 업체들의 연구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화장품 원료는 장기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화장품 원료야말로 제품의 효능과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기업들이 신원료·신기술·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7/202307060917551002.html

7 中 휴대폰 제조사, 반도체 칩 사업 투자 확대

■ 외부 환경요인의 압박으로 자주적으로 기업들의 자체적인 산업 공급망 구축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휴대폰 제조사들의 반도체 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최근 화웨이(华为)는 칩 등 기술인재 대규모 채용계획을 밝혔고 Honor(荣耀)도 관련분야 자회사를 설립했음. 레노버(联想), 화웨이 등은 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비보(vivo), 오포(OPPO) 또한 자체적인 칩 연구개발에 나섰음

- 한편 휴대폰 제조사는 스마트폰의 핵심인 SoC(시스템온칩) 개발은 어려워 ISP(이미지 신호처리), DSP(디지털 신호처리) 등 소형 칩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톈옌차(天眼查)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샤오미는 110개 반도체 칩 및 전자제품 기업에 투자했으며, 화웨이 산하 하훠투자연합(哈勃投资联合)도 60개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음

- 롄촹캐피탈(联创资本) 왕신위(王欣宇) 회장은 중국의 휴대폰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윤이 하락하는 단계로 휴대폰 제조사들은 칩 분야에 맹목적으로 뛰어들 것이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자본 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 공급망을 구비할 것을 권고함

자료원 : 중국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7-04/A1688402204909.html